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0년도 표어 ⊗

하나님을 기쁘시게 (요8:29, 시37:4)

⊗ 행동지침 ⊗

- 1.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교회
- 2. 성수주일을 철저히 실천하는 교회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의 모범이 되는 교회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558-2107 www.seoulchurch.or.kr

한 에베소서 강해

바울의 특권 (에베소서 3:1-13)

바울의 특권은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는 특히 두 가지 특권, 곧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과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것에 감격하며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1.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비밀'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는 이 비밀이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 이제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완전히 알려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비밀은 다른 사람에게에는 알려지지 아니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 보여주셨고, 교회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하는 비밀입니다.

이방인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후사가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또한 이방인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을 이루게 되고 이스라엘과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2.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복음의 비밀을 받으라는 것과 이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의 온 삶을 바쳐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이란 그를 믿는 자는 모두 죄와 죽음으로부터 살려 내시는 부활의 풍성입니다.

3. 교회가 해야 할 일

교회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 그리고 복음의 비밀을 세상의 정사와 권세자들에게 알려 줄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 곧 하나님의 구원, 권능, 은혜, 부활, 사랑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야 합니다.

교회가 해야 할 사역은 교회 안에 들어와 이는 양들을 목양하는 일과 세상을 향해 비추야 할 빛의 사역입니다. 교회는 이 두 가지 일을 균형 있게 감당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이 두 가지 사역을 할 수 있었음을 자신의 특권이요 또한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교회는 역사의 중심이며 복음의 중심이며 기독교인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며,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복음의 비밀을 받고, 전도하는 특권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바울과 같은 특권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 자로서 복음의 비밀을 세상에 선포하고 세상 끝까지 전파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Jong-yun Lee (Senior Pastor)

Paul's privilege (Ephesians 3:1-13)

Paul's privilege was to preach the Christian faith to the Gentiles. He was deeply moved by the revelation of God. So when Paul received God's command, he carried out his mission of evangelism.

1. God's revelation given to Paul

Paul expressed God's revelation with the word, 'mystery.' He said that this mystery was not known to anyone before Christ, but it was now known completely to everyone after Jesus Christ.

Although this mystery was previously not known, God made it known to His people, which was the church. In the church, this mystery was unveiled to the Jews and the Gentiles together. The mystery was that the Gentiles, along with the Jewish people, would be taken care of in Jesus

Christ through the gospel. This was the mystery of Jesus Christ. Moreover, through the gospel, all Gentiles would become one body with the Jews in Jesus Christ, and they would now take part in the same promise with the people of Israel.

2. God's command given to Paul

The command that God had given to Paul was that we the church should receive the mystery of the gospel and share it with others. Paul, in conformity with God's command, dedicated his entire life to the ministry to the Gentiles and preached the abundance of Christ. The abundance of Christ is the abundance of the resurrection and the delivery from sin and death for those who believe in Him.

3. The mission that the church must be responsible for

The church is responsible for letting others know about God's abundance which we cannot survey, the mystery of the gospel. God's various wisdoms, that is to say, God's salvation, authority, grace, resurrection, and love must appear all over the world through the church.

The mission of the church is that all people must come into the church and breed other sheep, and shine the light into the world. The church must deal with these two duties in balance. In considering these duties for himself, Paul gave thanks to God for the mission that he had received as an apostle to minister to the Gentiles and considered these duties his own authority and glory.

In understanding its own authority, the church must be properly oriented in its understanding of history, the gospel, and the Christian life. Using these means, God will work through the church. Therefore, the church must be available as God's instrument.

My beloved Christians!

Just as Paul received the mystery of the gospel from God, and along with it, the gospel authority, we are now people who have been handed an authority just like Paul. As recipients of this great privilege, proclaiming God's mystery to the world, and preaching it to the end of the world, I sincerely pray that we will all become God's faithful peopl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 TV: **케이بل CH 42(CTS,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بل TV로도 시청가능)
- **KI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한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제 38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후반기 열린 프로그램 개강

8월 30일(월)부터 각 프로그램 별로

2010년 38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와 후반기 열린프로그램이 8월 30일(월)에 시작된다. 지난 주 주보에 간지로 삽입된 열린프로그램 안내 브로슈어와 신청서에 따라 본인의 일

정을 조정하여 모든 성도들이 한 과목 이상을 수강하기 바란다. 열린프로그램 접수는 사무국에서 한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2010 사랑의 바자 - 2주 앞으로 성큼

9월 9일(목) 오전 10시 ~ 10일 (금) 오후 6시

'장애우와 노인복지를 위한 아가페타운 건립돕기 2010 사랑의 바자'가 9월9일(목) 오전 10시 교회 정문 앞마당에서 개장예배를 시작으로 10일(금)까지 이틀간 열린다. 이번 사랑의 바자는 행복한 나눔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을 실천하고, 수익금은 교회목표 중 하나인 빈약한 자 구제를 위해 쓰인다. 성도들은 뜨거운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로 바자가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란다. 기증품은 사무국에서 접수받고 있다.

파송예정 선교사 오늘부터 목회동역 시작

금년 11월 28일 (주) 파송 예정 선교사들이 오늘부터 교역자들과 함께 목회동역을 시작한다. 선교사들은 앞으로 약 3개월 동안 심방과 교회 내의 각 교회학교와 기관들의 사역에 동참함으로써 서울교회 가족 됨을 확인하고 성도들

과의 교제를 통해 기도 동역자들을 얻는다. 파송예정 선교사는 정상진/홍성임(팔라우)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이종길/홍미영(말레이시아) 박진영/김미성(방글라데시) 등 8명이다.

2010 사명자대회 준비 시작되다

10/10(주) ~ 11/28(주) : 50일간

교회설립기념주일까지 50일 동안 계속되는 기도와 전도의 대장정, 2010년 사명자대회 준비가 시작 되었다. 이번 사명자대회는 10월10일 (주) 찬양예배 시간에 발대식을 시작으로 50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한다. 사명자 대회 조직은 다음과 같다.

- 지 도 : 서명철 목사
- 본 부 장 : 신용식 장로
- 차 장 : 배재송 집사
- 진행분과 : 윤명구 집사
- 홍보분과 : 허 숙 권사
- 전도분과 : 은기장 집사
- 기도분과 : 김장섭 집사
- 교육분과 : 이계홍 집사
- 안내분과 : 이남성 집사
- 재정분과 : 양준경 집사
- 봉사분과 : 김진환 집사

추석 연휴 성경통독사경회

9/22(수) 오후1시~23(목) 오후5시 범위: 창세기~사사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추석 연휴 기간 중에 우리교회 성도들은 성경통독사경회로 모인다.

이번 성경통독사경회는 9월22일(수) 오후 1시부터 23일(목) 오후 5시까지 양일간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열리며 교재는 개역개정판 성경을 사용한다.

성경통독범위는 구약성경(창세기~사사기)이며 우리교회 교역자들이 강사로 선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영광돌리는 추석이 되도록 기도한다.

다락방 개학

9월3일(금) 부터

무더운 여름 8월 한 달 동안 방학에 들어갔던 다락방 모임이 이번 주 금요일(9월 3일)부터 다시 개학된다.

교구장, 교구간사, 다락방장들은 그동안 축적된 영적 힘을 쏟아 다락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한다.

피택자 교육 재개

9월4일(토) 오전6시10분

피택집사 및 피택권사 2차 교육이 9월4일(토) 오전6시10분 602호와 501호에서 각각 개강한다. 피택자들은 주일찬양예배와 수요예배 등 공예배에 필히 참석하여 예배의 모범을 보여 피택자로서 수순수범의 자세를 보여야한다.

지난 주까지 '사랑의 온도'는 489도-오늘 마지막 모금행사

-1% 나눔약정과 10% 절제약정 기금은 다음주 현금시간에 제출하시길-

2010 사랑의 바자 준비위원회(위원장 임상헌 장로)는 이번 8월 한달 동안 사랑나눔 A+캠페인을 전개하였고 이에 호응하고 참여하여 준 모든 성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모금시간과 봉사시간 중복 등의 문제로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하여 오늘 하루만 8층 식당입구에 모금함을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한다.

이제 오늘로서 위 캠페인은 종료하게 되고 본격적으로 9월9일, 10일 개최될 바자행사 준비에 돌입하게 되는데 9월 바자행사에도 각 교구와 성도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한편 오늘부터 2주간 동안 옷장비우기운동을 통하여 모아진 재활용의류를 1층에 마련된 수집장소에서 접수하며 특별히 위 접수기간에 동참하는 성도들에게는 9월 바자행사 때 8층 푸드코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증정하게 된다. 아울러 재활용의류 이외에도 옥합을 깨는 심정으로 성도들이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물품 및 헌물(부동산, 회원권, 상품권, 유가증권, 도자기, 미술품, 귀금속

등) 등도 같은 기간에 사무국에 접수하여 주기 바란다.

지난 주간 추가로 접수된 나눔과 절제약정에 동참한 성도명단은 다음과 같고 이미 그동안 위 약정에 동참한 성도들이 8월 한달 동안 각 사업장과 가정에서 사랑실천의 결과물은 9월 첫주 현금시간 또는 사무국을 통하여 바자위원회에 제출하여 주기 바란다. 이미 약정한 분 이외에도 동참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현금봉투에 사랑나눔A+운동 기금이라는 명칭을 기재하신 후 현금시간에 제출하면 된다.

- *1% 나눔운동 참여약정자(필호안은 운영기업명칭) 권소희 박종권 박혁(연세참산부인과) 신성균(운누리건강약국) 이강진(법무법인 디지털) 이성우 정치은(KPG IMAGE) 한동현
- *10% 절제운동 참여약정자(필호안은 가족 또는 후원부도 이름) 김경복 김문범(권소회) 김하연 박주원-박희원(박종민) 서명조(김효순) 신항우 오윤진(유혜영) 이경효 이성우 임영숙 정영주 정명수(서양지) 한혜경 김재혁 채호승 송지혜-송지수 (송영재 합정회)

제14회 화요 정오 음악회

10월12일 - 11월 16일

매주 화요일 정오 / 본당에서

성도와 이웃주민을 위한 제14회 화요정오음악회가 10월12일(화)부터 11월16일(화)까지 매주 화요일 정오 본당에서 열린다.

이번 화요정오음악회는 오르간 독주회로 열리며 연주자는 다음과 같다.

- 10월 12일(화) 정오 : 강민정 오르간 독주회
- 10월 19일(화) 정오 : 이한나 오르간 독주회
- 10월 26일(화) 정오 : 손경순 오르간 독주회
- 11월 2일(화) 정오 : 김주현 오르간 독주회
- 11월 9일(화) 정오 : 차주연 오르간 독주회
- 11월 16일(화) 정오 : 김현정 오르간 독주회

목사이종운 · 박사이종운 - 목회자의길 5

최초의 대대교회 세우다!

전방 G.O.P를 순회 전도하던 중 벼랑에서 자살을 기도하던 박OO 특무상사를 만나 상담과 전도를 하였고 그분의 제안으로 그 해 성탄절엔 대대에 교회당을 짓게 된다. 대대장의 배려로 술, 담배를 안하는 병력20명을 매일 배당받아 수십리길 남방으로 내려가 나무를 베어다가 이종운이 백지위에 그린 설계따라 얼어붙은 흙을 파고 물을 부어 흙벽돌을 만들어 불을 피워 말리면서 예배당을 지었다. 봄이 되었을 때 겨울에 지은 막사 대부분이 허물어졌지만 교회당은 워낙 정성을 들여 지은 집인지라 끄떡없이 견뎌냈다. 충현교회에서 긴의자 50개를 보내주어 250명 이상 수용되는 보기 좋은 교회당을 짓고 야곱이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벨벳교회라 간판을 걸고 500명이 안되는 대대원 중 300명 이상의 군인들이 주일과 수요일에 참여하는 대한민국 군 역사상 최초의 대대교회가 탄생케 된 것이다.



이종운 목사 군 제대증

이종운은 짧은 군생활을 최대한으로 아껴서 사용키로 기도하고 이를 추진한다. 그가 주둔하고 있는 강원도 금화지역은 전쟁의 피해가 심해 많은 젊은이들이 교육받을 기회를 놓친 이들이 있음을 발견한다. 그는 동리를 찾아 금화중등학교원이 개설된다는 광고를 써붙였다. 교육기회를 놓친 20대전후의 청소년들이 무료로 가르치는 중학교에 지원을 했다.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이던 박순천의원이 선거 사무실로 사용하던 건물을 빌려 학교를 하려니깐 150명의 지원자를 소화할 수 없어 이종운은 여학생은 단발머리, 남학생엔 삭발을 조건으로 90명 학생을 선발하여 금화중등학교원을 개설한다. 탱크부대 복무하는 육사 출신 성도, 금화군청에 근무하는 소위 일류대학출신 공무

원들을 만나 수학, 영어, 국어, 역사등 과목은 맡겼지만 성경, 음악, 농업을 강의할 교사를 구할 수 없어 이종운은 자격이 없지만 자습을 해서 강의하고 실습도 한다.

특히 농업은 천안중학교시절 배운 과목이 생각나서 책을 읽고 읽으면서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격으로 농사일의 전문적인 사람들에게 땅에 풀 한포기 심어 본 경험도 없는 이가 강의를 한다. 이종운은 이들에게 농업의 기술보다는 정신을 심어주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 나라가 가난한 이유는 주지욕립에 빠져 나태한 노름과 미신에 집착했기 때문이라 진단하고 기도한 후 사단장을 찾아가었다. 이등병이 사단장 면담을 요청하자 정문 수위실에서부터 제제를 받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그날 사단장을 독대하게 된다. 이종운은 금화중등

학원 개설을 했는데 개간할 농지가 없어 도와달라고 했다. 사단장은 즉시 작전참모를 호출하여 와수리에 있는 00부대 앞 산등성을 좋은 일 하겠다는 군종하사관 명찰을 단 이종운의 요청을 받고 목사님께 드리라고 명령한다. 군목은 대민 업무도 감당해야 한다는 조언까지 주시며 이종운을 격려한다.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이종운은 90명 학생들에게 우리가 못사는 것은 계름 때문이니 매일 새벽5시에 물통에 물을 가득 담고 막대기에 매달아 서로 어깨에 매게 한 후 "개척자의 참 바램은 목적이란 오직 노동, 줌가리 가리가리 줌가리 가리"라는 노래를 부르게 하고 일열로 농지를 향해 행군을 한다. 새벽훈련을 나온 군인들로 사람들은 착각할 정도로 비록 복장은 통일되지 않았지만 일사불란한 기드온의 군대였

(다음호 계속)

이종운 목사님 70회 생신 인사의 글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시 56:8)

지나온 70평생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흘린 눈물병이 몇 개나 될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병원에 약병이, 양조장에 술병이 많은 것처럼 하늘나라에는 눈물병이 많을 것으로 상상해 봅니다. 각각의 병에는 이름표가 붙어있을 것이고 물론 내 이름이 새겨진 나의 눈물병도 그 중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때로 이 눈물병을 검사하시면서 나의 지상생활의 성실성 여부를 재점하실 것입니다.

값없이 흘린 눈물도 있을 것이고, 어떤 병은 값으로 계산 되지 않는 눈물도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 병은 크고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눈물이 없다면 눈물병은 유명무실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문득 내가 뿌린 값진 눈물의 양이 얼마나 될지 다시금 병을 들여다봅니다. 마른 눈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명언이 있습니다. 70년동안 흘린 눈물의 양이 적량에 미치지 못해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을 보는 것 같아 모골(毛骨)이 송연해 집니다. 내 이름이 붙은 눈물병엔 감사의 눈물, 통회의 눈물, 기도의 눈물, 구령(求靈)의 눈물, 주의 교회를 위한 눈물, 순교자의 피와 동일한 눈물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나의 눈물병에 눈물이 한 방울씩 더해 갈수록 하늘나라에서 기뻐할 일들이 한 가지씩 더해 갈 것입니다. 내가 일생동안 흘린 눈물을 담은 눈물병에서 서울교회를 위해 흘린 눈물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값진 것으로 여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무익한 종의 상급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합니다.

2010년 8월 23일
목사 이종운

경로대학을 개강하며

노년을 아름답고 보람 있게



홍성주 장로 (살롬경로대학부장)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 고령화 사회(총 인구의 7%가 65세 이상)에 진입하였습니다. 이러한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질 높은 삶을 살아가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서울교회는 평생교육기관으로 살롬경로대학을 부설하고 2010년도 2학기 개강을 준비하

고 있습니다.

교육에 참여하는 대상은 65세 이상이면 남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며 교육과정은 건강과 교양수준을 높이는 교양강좌와 문화체험 및 다양한 특별활동으로 나뉘어집니다.

흥겨운 노래시간, 질 높은 교양강좌, 신나는 특별활동시간-영어회화반, 노래반, 체조반, 탁구반, 풍선아트반, 민간요법반등 각자의 취미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 취미생활의 폭을 넓힙니다.

이상과 같은 교육과정에 참여한 서울교회 경로대학생들은 노년을 아름답고 보람 있게 봉사하며 활기차고 신나는 노년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종교나 학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도록 열린 프로그램으로 이뤄지는 서울교회 경로대학에 오셔서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목회자 세미나 개강을 기다리며

기대와 소망 가운데서...

손명철 원로목사(92-0351 학번)

세미나 홍수 속에 가장 알차고 가치있는 세미나는 서울교회 목회자 신학세미나라 생각합니다. 38학기 19년이라는 오랜 세월 끊임없이 매 학기마다 가장 저렴한 등록금 2만원, 그리고 대단히 알찬 내용의 강의, 폭 넓은 각 교단·학계의 전문 강사님들, 거룩한 열정으로 강의해 준 내용의 자료들은 참으로 귀하고 귀하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한국교회 갱신 연구와 기독교 문화창달에 기여한 바 크다 하겠습니다.

진실로 귀중한 세미나이기에 봄철 3월이면 봄학기가 기다려지고 9월에는 가을학기가 기다려지는 가운데 이제 38학기를 맞게 되었으니 기대와 소망 가운데 가슴이 울렁이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입니다. 금

년같이 무더운 여름의 폭염과 장마, 국지적으로 호우, 폭우, 태풍으로 매우 힘들었습니다. 아직도 그 후유증이 대단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서울교회 신학세미나는 다른 세미나와 전혀 다른 전교회가 헌신, 봉사, 친절 안내해주는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참으로 값지고 아름다운 세미나입니다. 이 세미나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첫 시간은 텍스트(Text), 둘째시간은 콘텍스트(Context)로 기능·기복 목회 아닌 인격·실력 목회를 하도록 가르쳐 준 그 내용 자료들은 두고두고 볼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4학기를 수료한 동문들은 귀중한 서울교회 신학세미나에 관심을 갖고 사랑함으로 모임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부대학을 개강하며

주부대학에서 꼭 법기를...

이인순권사(주부대학 차장)

우리교회는 열린프로그램을 통하여 많은 성도들이 수강하여 문화의 기독교화를 이루어 가도록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주부대학을 통해 많은 수료생들을 배출하였고, 또한 계속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부대학은 성도와 이웃 주민이 함께 어우러져 여가시간을 선용하여 성경과 교양과목을 통해 보다 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유익하도록 준비한 프로그램입니다

20학기를 맞는 주부대학은 8월 31(화) 오전10시 준비찬양과 경건회로 시작해 매주 화요일 9회에 걸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11월2일까지 진행합니다.

이번학기 강좌는 신앙강좌를 비롯해 기독교인의 영화감상법, 여성의 건강관리, 생활법률, 기독교인의 대화법, 건강한 기독교 가정 만들기, 피부관리 등이며 강사분들도 교회 내외의 유명전문가들을 초청했습니다

다. 또한 야외학습으로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의 교제를 통해 연합하는 아름다운 시간도 계획했습니다. 이번 주부대학에 동참해 주세요. 분명 후회 없이 종강하는 날, 감사의 고백이 넘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이웃에게도 권하여 전도의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부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꼭 만나뵙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예루살렘 찬양대 지휘자인 김민영집사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서울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하고 미국 맨해튼음대에서 성악으로 석사와 박사를 마치셨으며 귀국후 독창자로 활발한 연주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성신여대와 속명여대에서 강의하고 있다.

오늘은 '오 신실하신 주(William W. Runyan)' 외 두곡을 차주연선생(예루살렘찬양대 오르가니스트)의 오르간과 최영은성도의 피아노로 드리며, 바이올린은 박동수성도, 트럼펫은 박승기성도가 수고한다.

그리고 동문회 임원들은 침체되어 있는 현 체제를 쇄신 유기적이고 능동적인 살아 움직이는 조직으로 수직 아닌 수평으로 명실공히 권위있는 서울교회 신학세미나 동문모임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다가오는 38회 좋은 세미나를 맞게되어 감사합니다.

동정

■ 이종운 목사는 30일(월) 95회 총회 서울강남노회 총대모임에서 설교한다. 31일(화) 한장총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9월1일(수) 서울기독교대학교 총장 취임식 설교를 한다. 총회표준주석편찬위원회 임원회를 소집한다.

■ 이갑진 장로(박우주 권사) 9/1-5까지 일본 나라타, 신주쿠 동아시아기독교인대회 주관 및 제5회 자위대 선교대회 주강사로 참가

■ 수상: 14교구 선순례 집사「수필과 비평」 신인상

■ 득녀: 8교구 한상옥 집사 손영희 집사

■ 개업: 1교구 고옥경 집사(윤동수 집사) "산타로사(Santa Rosa)" 명품, 액세서리, 인테리어 소품 은마상가 B블럭 217호(전화: 562-1959)

■ 이사: 13교구 최정필 집사 홍지민집사 대치2동 은마아파트 1동 106호

■ 주간식당봉사 제1스데반(8.29) 제2스데반회(9.5)

■ 금주의 식사: 우상룡 전미에 집사 가정 (장례를 은혜중에 마치고)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 일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 일 오후 5시	
영 어 예 배	주 일 오전 11시20분	
수 요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요일기도회	오후 8시3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서울교회, 우리가정 되게 하소서.
2. 세계에 흩어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3. 2010 사랑의 바자 은혜롭게 준비되도록
4. 38학기 목회자 세미나, 성경대학 등 열린프로그램 많은 열매 맺도록
5. 1교단 다체제 한국장로교회 거듭나기 위하여

■ 교회오시는 길

